다년간 중단되었던 철도소하물 운송업 전격 재개

2014 년 07 월 28 일, 차이신망(CAIXIN.NET)

[차이신망(CAIXIN.NET)](장전전(張眞眞) 실습기자, 루빙양(路炳陽) 기자) 지난 주 북경철도국 및 상하이철도국이 경진기(京津冀, 북경·톈진(天津)·허베이성(河北省)의 약칭) 급행화물열차 및 장강삼각주 도시 간 급행화물열차를 개통한데 이어 지난 7 월 26 일과 7 월 27 일 중국철도총공사 산하 또 다른 두개의 철도국 즉 난창(南昌)철도국과 광저우(廣州)철도(그룹)공사(이하, '광저우(廣州)철도그룹'으로 약칭)도 잇따라 급행화물열차 및 소하물 운송 전용 직행 노선을 개통함으로서 장시성(江西省), 푸젠성(福建省) 및 주강삼각주 지역의 수송능력을 증대시켰다.

철도소하물운송이란 차량 한대를 채우지 못하는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한대의 열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화물운송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철도총공사의 한 관계자는 여러 철도국이 잇따라 지역 급행열차를 개통함에 따라 다년간 중단되었던 철도소하물운송업이 전격 재개되었다고 차이신망(CAIXIN.NET) 기자에게 전했다.

차이신망(CAIXIN.NET)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난창(南昌)철도국이 이번에 개통한 난창(南昌)-푸저우(福州)행 급행화물열차(열차 번호 X801/802)는 징쥬(京九)선, 후쿤(沪昆)선, 펑푸(峰福)선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전 노선을 완주하는데 10 시간 소요되며 여객수송열차 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최근에 개통된 기타 화물수송열차와는 달리 동 급행화물열차는 야간열차로 저녁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난창(南昌)철도국의 한 관계자의 소개내용에 따르면 난창(南昌)철도국이 이번에 개통한 급행화물열차는 대량화물 운송서비스 및 독차운송 서비스 외에 몇톤 심지어 심몇키로 무게의 잡화 및 소량화물을 위한 종합물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낮에 조달, 적재한 화물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하역 및 배송이 가능하다. 난창(南昌)철도국은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站到站)', '도어 투 스테이션(門到站)', '스테이션 투 도어(站到門)', '도어 투 도어(門到門)' 네가지 방식의 화물운송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통된 급행화물열차는 난창(南昌)철도국이 철도소하물운송업을 재개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위의 관계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현단계 난창(南昌)철도국은 난창(南昌)-샤먼(夏門)행, 난창(南昌)과 기타 철도국 관할지역간의 급행화물열차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난창(南昌)철도국의 뒤를 이어 광저우(廣州)철도그룹도 7 월 27 일 주강삼각주와 창주탄(長株潭, 창사(長沙)·주저우(株洲)·샹탄(湘潭)의 약칭)지역을 운행구간으로 하는 아홉개의 소하물운송 전용 직행 노선을 개통했다. 이 아홉개의 화물운송 전용 노선은 여객수송열차 식으로 운행되고 있고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이 고정된 직행 노선으로 주강삼각주와 창주탄(長株潭)지역 주요 도시간의 소량화물 '익일송달' 또는 '격일 송달'을 실현했다.

광저우(廣州)철도그룹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과거의 철도소하물운송은 반드시 차량 또는 컨테이너 한대가 채워진 후에야 출발이 가능했기에 시효성을 보장받기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개통한 아홉개의 소하물운송 전용 급행노선은 화물량을 불문하고 취급이 가능하며 화물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운송처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광저우(廣州)철도그룹은 업무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운송의 전통 분야로 진입하여 광저우(廣州) 린안(林安)물류단지, 광저우(廣州) 이민(益民)패션몰 등 물류단지와 무역시장에 철도소하물운송 화물접수처를 설치하였다. 광저우(廣州)철도그룹 관계자는 소하물운송 전용 직행노선 개통 첫날인 27 일 아홉개 전용 급행노선의 소화물 수송량은 13 대 차량/14,269 건으로 362 톤을 기록했다.

중국철도총공사 관계자의 소개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국 18 개 철도국 중 북경, 상하이, 난창(南昌), 광저우(廣州) 네개 철도국(공사)이 철도소하물운송업을 재개하였으며 멀지않아 기타 철도국들도 잇따라 지역 경제권내에서 운행하는 급행화물열차를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에 재개된 소화물 운송노선은 동일 촐도국 관할 구역내로 한정되어 있고 두개 이상 철도국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노선은 개통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다음 단계로 중국철도총공사는 철도소하물운송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화물 접수처를 증설하고 두개 이상 철도국 관할구역 및 성(省) 범위에서 운행되는 장거리 소화물 운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단계 철도화물운송업의 형세에 대해 지난 주 소집된 전국 철도국 화상회의에서 중국철도총공사는 수송능력이 부족한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통과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 철도화물운송 형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철도총공사는 각 철도국

이 화물운송 마케팅과 일상 운송업무를 강화하고 '보틀넥(bottleneck)'을 해결하여 수송량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중국철도총공사는 '온흑증배(穩黑增白, 석탄 등 흑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량을 보장하고 화학품 등 백색화물의 수송량을 늘린다.)'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백색화물 수송량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컨테이너 고객 확대, 컨테이너 처리장 분포 최적화 및 컨테이너 운송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철도총공사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 월 1 일 컨테이너운송 온라인 예약 업무가개시된 이후 20 일까지의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이 전년동기대비 25% 증가되었다.